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8년 11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6.(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1. 6.(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장원 사무관(044-203-4086)

한국에서 전기·자율주행차 미래를 결정한다

- 세계 주요 전기·자율차 기업들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 모색 -
- 한국의 유망기업들과 상담회를 통해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8년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2018) 계기에 **11.6.(화) 16:00~18:00**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을 개최했다.

* 포럼 주제 : "Brighten the Future"

○ 이번 포럼은 **전기·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선도하는 해외 선진 기업 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제 발표 기업 >

권역별	국가별	기업명	발표주제
미주	미국	Aero Viroment	태양광 전기차
유럽	프랑스	EASYMILE	자율차 상용화 사례
아시아	일본	Tajima Motors	전기차의 고급화
	중국	BYTON	자율차 기술개발
	대만	7StarLake	무인화 시스템 확장

□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자율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전기·자율차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최첨단 하이엔드 **기술이 집약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아이콘**"임을 강조하며,

○ “공유(shared), 연결(connected), 자율(autonomous)과 관련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은 물론 전기·수소·무선충전 등 **새로운 에너지**의 출현,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개발**, **입체(3D)프린팅 기술의 활용** 가능성도 높이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전기·자율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공간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도시(Smart City)로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내에 **상생할 수 있는 투자협력의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언급**하며, 전기·자율차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한국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혁신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테스트베드** 시장” 이며,

○ “5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다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가진 세계 생산거점”이라고 설명하고,

○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 또한, 행사 종료 후 **‘글로벌 이브이(EV)협의회’**(회장 김대환) 주최로 포럼에 참가한 해외 선진 기업과 30여개의 국내 자동차 부품제조·정보통신기술(ICT)업체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 동 상담회에서는 **전기·자율차 제조**에 필요한 기업(배터리, 모터, 센서, GPS 등)과 **기반서비스**(AI, 빅데이터, IOT, Car sharing, 진단, 모니터링 등)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서비스**(Retail, Logistics 등) 관련 기업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협의**했다.

○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각국의 전기·자율차 기업과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동 행사를 정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중 EV포럼(’19.1월, 중국), 글로벌 EV 엑스포(‘19.5월, 한국) 등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 개요**

□ 일 시 : 2018. 11. 6(화) 16:00~18:00

□ 장 소 :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로즈룸(5층)

□ 주 제 : Brighten the future - EV, Autonomous Vehicle, Smart city

□ 언 어 : 한-영 동시통역

□ 관람객 : 150여명

□ 프로그램(안)

시 간		프로그램	비고
16:00~16:05	5′	개회사	신통상질서 전략실장
16:05~16:20	15′	**(Key note Speech)** 전기·자율차 관련 산업 동향과 투자유치 협력방안 (김대환 회장)	글로벌 EV협의회
16:20~16:35	15′	**(발표1)** 전기차의 고급화 (Nobuhiro Tajima 회장, 일본)	Tajima Motors
16:35~16:50	15′	**(발표2)** 자율차의 기술개발 (Scott Sungyoung Bang 이사, 대만)	BYTON
16:50~17:05	15′	**(발표3)** 자율차의 상용화 사례 (Jean-Mark DESVAUX 부사장, 프랑스)	EASYMILE
17:05~17:20	15′	**(발표4)** 무인화 시스템 확장 (Martin Ting 회장, 대만)	7STARLAKE
17:20~17:35	15′	**(발표5)** 태양광 전기차 가능한가? (Kenneth Karklin 부사장, 미국)	Aero Viroment
17:35~18:00	25′	**패널토의 및 Q&A** (좌장: 글로벌EV협의회 김진철 대외협력위원장)	발표자